



## 오인회 소식

2016년 11월 (제62호)

권두언 (卷頭言)

### 이 순간에 필요한 생각의 길라잡이!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생각의 출발점은 100% 무의식입니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이는 1초 뒤에 또는 이 순간 바로 다음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게될지 모른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안다', '인식한다'라고 할 때는 늘 생각속에 있는 것이며,  
그래서 무언가를 '안다', '인식한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절대로 생각의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내용은 조건들의 조합에 따라 결정되어질 뿐,  
생각의 내용을 결정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나'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의 다양한 내용 속에 '나'라는 내용이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관찰이 조건으로 작용할 때는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러한 관찰이 잊혀져 조건으로 작용하지 못할때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찰이 여기에까지 이르면,  
생각의 내용이 결정되고 일어나고 알게된다는 사실이 매우 신기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간다면,  
생각이라는 것이 조건(타고난 기질, 삶의 경험, 현재 상황 등)에 따라  
생각의 내용이 결정되고 일어나고 알아지고 지금까지 쓰여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생각이 쓰여져야 한다면 조건들의 조합에 의한 생각의 결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생각이 어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무의식에서 출발하는 생각 속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이 알아차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알아차려짐'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생각의 길라잡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宇絢 -

## 백일학교가 ‘공동체 학교’로 거듭납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느 정도 자리잡은 백일학교는 이제 공동체 학교로 거듭나려 합니다. 그 시작은 청소년의 인성캠프(가칭)가 될 것이며, 활동 주축은 지난 2년간 백일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더 큰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학교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학교의 시작인 청소년 인성캠프는 ‘주의(注意)와 놀기’, ‘마음 사용하기’, ‘에너지 밸런스’, ‘통찰력 게임’, ‘자연에 맡기기’ 등이 중심활동이 되고, 그외 다양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시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친구들과의 조화로운 어울림,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인생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할 것입니다.

캠프 이후에는 1년여의 후속모임을 통해 한사람 한사람을 개인적으로 돌보아, 공동체학교 캠프에서 배운 새로운 습관을 일상에 뿌리 내리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장기계획으로 이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을 목표로 삼게 될 것입니다.

즉 홀로스 공동체는 이제, 인성캠프 - 1년의 후속모임 - 대안학교 - 청년백일학교 -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이라는 커다란 맥을 이루어 ‘교육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현재 홀로스는 이미 평생교육원으로 허가를 받아 등록된 상태이며, 내년 여름 캠프를 시발점으로 해서 위와 같은 전체 ‘공동체 교육’의 흐름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동안 미내사는 성인대상의 교육만을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간간이 청소년 교육은 없느냐는 회원님들의 문의와 요청이 있어왔습니다. 공동체 교육은 그러한 요청에 부응한다는 측면과,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번지고 있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문화격차로 인해 제 갈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도적으로 자신의 길을 발견하는 법과 사회에 조화로운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우리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지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월인 두손 모임 -

(자세한 내용은 9쪽 참조)



## 자등명(自燈明), 스스로를 믿고 불을 밝히라 자명 인터뷰(4)

자명님은 중학교 사회교사로 5년동안 재직하셨으며 지금은 전북 부안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계십니다. 라마나 마하리쉬의 '나는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서 마음의 본질을 파악하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후 두 군데 선원을 7년 넘게 다니면서 마음의 본질을 파악하는 공부를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미내사클럽 홈페이지에서, 깨어있기를 참가하신 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그동안 '마음의 구조'를 보지 못하고 내용에만 빠져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고자 깨어있기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깨어있기를 통해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마음공부의 여러가지 개념들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었구나 라는 통찰이 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 개념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체험을 더 하고자 오인회 수요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약 1년 9개월 동안의 오인회 모임을 통해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것들을 언뜻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깨어있기와 오인회를 통한 통찰과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허: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그것'은 뭐죠?

자: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욕구지요. 욕망, 일종의 감지인데, 그것이 일어나는 바탕은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허: 알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생겨난' 건가요?

자: 아니요, 그건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존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안거죠. 전과 같이 법문을 듣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것어요. 깨어있기로 뭔가를 해도 알 수 있는 건 아



니었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대상이 없고 나고 없고 그걸 언뜻이라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허: 보는 행위는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지요, 다만 그걸 눈으로 본다는게 아니고, 그냥 알아채고 싶다는 거예요.

허: '누가' 알아채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채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꼬리를 물면 답이 없어요. 그래도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갈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허: 나와 대상이 '없어지는' 그 상태를 '알고' 싶다?

자: 그걸 아는 어떤 순간에, 알아채는 순간에 본인이 확실히 알 수 있대요. 그걸 안 사람이. 그런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알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은, 주체와 대상이 나뉘어져 있다는 건데, 대상도 없고 나도 없는 그것을 알 수 있나? 하는 거죠. 그걸 다시 알려고 하면 주체가 또 생겨나고, 또 알려고 하면 주체가 또 생겨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알 수 없는 거다 라고, 그래서 그 의문이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하지만, 나는 그 의문이 사라지질 않아요. 제가 깨어있기 과정을 하고 2014년 12월부터 1년 6개월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대한 갈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마지막 과제예요. 그것이 어느 때에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걸 갈망으로 품고 있겠다는 거죠.

허: 처음 깨어있기 강좌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구조를 본다' 라는 것에 대해 마음이 움직인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조 속의 '나와 대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자: 나와 대상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쌍으로. 내가 대상을 인지한다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을 증거하지요. 그 둘이 이원화되지 않으면 저는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나나,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방식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걸 알아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허: 마지막 본질이 있고 그걸 알고자 하는 자명님이 있고...

자: 세계는 아직도 그것이 숙제예요.

허: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나'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찾아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계속 되풀이돼요.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는 나를 바라보는 어떤 관찰자가 있을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나'도 대상이 돼요. 대상이면서 주체인 거지요.

허: 대상인데 주체가 되었다?

자: 예, 하나가 둘이 되고, 그중 하나는 계속 주체인거죠. 다시 또 그럼 그건 뭘까 하고, 자문해봐요.

허: 나가 돌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주체로서의 나와 대상으로서의 나라고 하지만, 그것이 둘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구조적인 '현상'으로 인해 생겨난 '나'이지요. 그러니 지금의 '나'라는 것은 현상적인 '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구조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 '아하!' 그러지가 않아요.

허: 실감이 안나신다는 건가요?

자: 그렇죠. 체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체험을 너무 그렇게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자문해요. 그러나 다음 순간에 '아니, 그래도 나는 알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허: 바로 '지금'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 알고 싶어하는 그것... (웃음) 알고싶다 라고 하는 나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지요. 또 그것은 마음의 대상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그것이 '아하!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더 찾을 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느껴보셨으면, 뭔가 알고 싶어 하는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 아닐까 이런 의심은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요. 이것도 믿음이죠. 다만, 제가 체험에 너무 집착하니까 그렇다고 매번 수요 오인회 할 때마다 들어요. 결국은 마지막 문제가 그걸로 귀착이 되죠. 그래도 그것이 전 아하, 이렇게 되지 않는거예요.

허: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겠다 하는 강한 열망이랄까, 추구심. 다르게 말하면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 아닐까요?

자: 맞아요. 믿음이에요

허: 어떻게 보면 그것과 동일시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알아채셨나요? 그건 좀 느껴지시나요? 내가 혹시 여기에 동일시되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은 안해보셨어요?

자: 아니, 내가 의심한 건 아니고, 그건 월인선생님에게 들었어요.

허: 그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그렇게 월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들어도 계속 그것을 객관화 시켜서 박지지는 않고, 그냥 '그래도 난 알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죠.

허: ‘그건 알고 싶어’ 라는 마음, 강한 열망, 유혹이 생기는 것 ‘그 자체’는 무엇인가 하고 탐구해보시면 좋을 것군요.

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탐구를 하려고 하고 있죠. 남은 인생 동안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거든요.

허: 알겠습니다. 깨어있기 수업과 수요 오인회 수업을 꾸준히 참석하고 계신데요, 거의 빠지지 않으셨죠? 그 과정에서 대인관계나 일상의 삶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그리고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여자대학을 나와서 동성끼리 참 잘 지내요. 여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교하고 그 사람을 앞지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하고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가 좀 내성적인 데다가 남이 저에게 하는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청소 좀 깨끗이 해라. 네가 끊인 된장찌개는 맛이 없다.’ 이런 소리요. 그런데 깨어있기 수업을 듣고 나서 달라졌어요. 난 그게 언제나 ‘그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죠. 우리 남편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더라 구요. 그러니까 ‘남편은 너’라고 보는 관점이 없어졌죠. 즉, 들려오는 소리는 밖에서 온다 해도, 그렇게 기분나쁘게 느끼고 해석하는 것은 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된장찌개가 맛이 없어요? 다음엔 조금 다르게 끓여볼게!”라고 말해요. 일단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다음에는 조갯살을 넣어볼까, 고기를 넣어볼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번에 제가 조갯살을 사러 간다던지, 뭐 생각이 나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꼭 유념하는 것은 아니에요.

허: 편하게 사시는군요!

자: 네, 제가 그래요.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 이야기도 잘 주고받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동생이 그래요. “언니는 뭐 아들하고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나는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할 이야기가 생겨나요. 딸하고는 물론 말이 많죠.

허: 이 공부에 있어 아직 해결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자: 아까 그거예요. ‘그래도 그냥 난 알고 싶어!’ 라는 마음이에요.

허: 그것 또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요?

자: 그렇죠. 그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허: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인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했어요.

허: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자: 제가 정한 거죠.

허: 본인이 정한 거죠. 남편분이 정하신 것도 아니구요. 지금 이 마지막 공부에 있어서는 무엇이 다르게 느껴지신다는 건가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같아지지 않아요.

허: 머리로는 정리가 돼서 이해는 되는데 아직 실감이 안 된다는 건가요?

자: 체험이 안 된다는 거죠.

허: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대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때 대상은 ‘궁극적인 본질을 추구하려는 나’인 ‘자명’이 되고, 궁극적인 본질을 대상으로 삼는 ‘나와 대상’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네, 구조적으로는 그렇죠.

허: 그럼 결국 ‘구조를 파악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네 맞아요. 나의 현상적인 문제들은 모두 내 안에서 벌어지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이것, 내가 그 본질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서 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다는 말이라는 것도 그런데...

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깨어있거나 오인회 참여를 계기로 앞으로 자명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또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면?

자: 계획이라면, 궁극적 본질을 체험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과제구요. 변화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애기였을 때부터 자고 일어나면 울어요.

허: 자고나면 배고파서 우는 애기도 많지 않나요?

자: 그러기도 하지만 조금 더 커서 3~5살이 돼서도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뭔가 앞이 뿌얘지면서 마음이 찬 바람 불 듯 차가워지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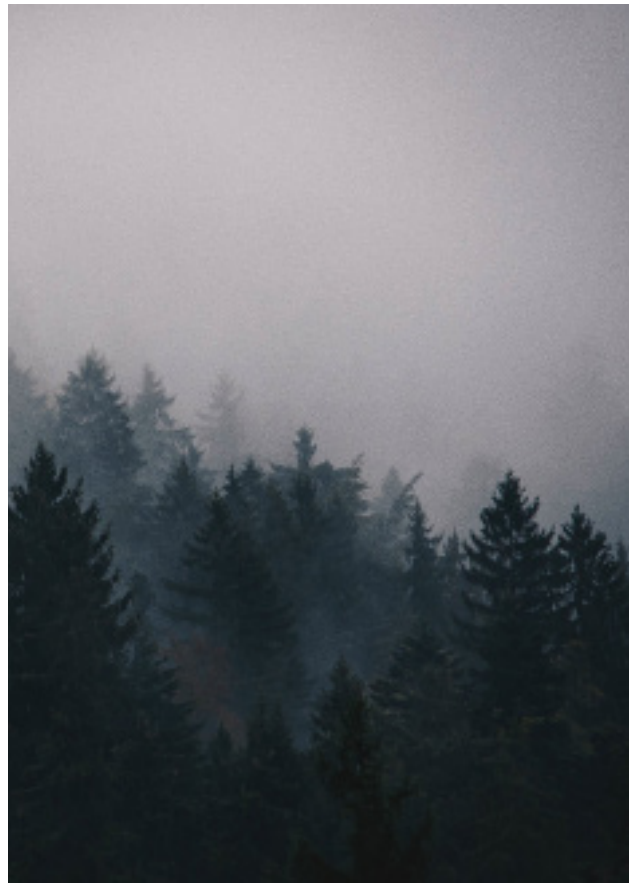
허: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세요?

자: 그럼요. 그것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죠. 울고 나서는 어머니에게 맞아요. 애가 자고 일어나서 방긋 웃지 않고 울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혼나는 거죠. 집안 망하게 할 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울다가 멈춰

요. 맞는 게 무서우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슴이 싸 하면서 그것을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쓸쓸하다고 해야 하나 억울하다고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깨어있기 심화 수업을 듣고 나서 모두 없어졌어요.

#### 허: 어떻게 없어진 거죠?

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이 또 찾아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뭘지 산다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어요. 산다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날도 마음속으로 공부하는 중에 내가 확실히 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두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는 "얻는 것이 아닌 것"인데,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본질적인 것이란 사실 알고 보면 없음? 텅 빈 상태 같은 공이 아닐까? 그래서 뭘지 '알려고 애쓸 것도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지나갔죠. 그리고 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그 쓸쓸하고 비관적인 마음이 없어졌어요. 요즘 월인 선생님이 물어봐요. 요즘엔 괜찮냐구요. 그러면 '요새는 괜찮아요. 없어졌어요' 라고 하지요. (다음호에 계속)



## 대승기신론(45) - 2013년 3월 26일 강의

지난 시간에 일법계(一法界)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법(法)이라는 단어 하나가 본질의 세계인 법, 모든 현상계를 나타낼 때의 법, 본질을 표현해 내는 설법의 법,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는데 이 의미들이 서로 통합니다. 본질의 세계를 나타내는 법과 현상계를 나타내는 법이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법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번뇌로 가득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법계(一法界)의 의미는 모두가 오직 하나의 세계일뿐이라는 것입니다. 본질과 현상이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에 모든 분별이 실제적인 분열을 일으킨다고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처 받은 마음이 생기면 자신이 상처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물든 마음입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면 곧 우쭐하고 자만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곧 자기라고 여기는 거죠. 깨어있기에서 우리는 '느낌은 느낌일 뿐'이고, 그 느낌과 상관없이 깨어 있는 마음을 발견하는 연습을 했었죠? 일종의 본질의 그림자를 경험하는 연습인데 본질의 측면도 a이와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느낌은 느낌대로 있고 본질은 본질대로 있는 것이죠. 느낌은 모두 현상의 세계이고 그와 상관없는 본질의 마음은 본질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이 있다는 것이 곧 본질의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일법계(一法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현상의 법계와 그 물든 마음에 영향 받지 않는 본질의 세계가 동시에 있으니 그 현상계 역시 진리의 법계인데 이를 알지 못하고 번뇌에 시달리는 마음이 바로 중생심(衆生心)입니다. 대승기신론 처음에 얘기 했던 중생심이죠.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진여문은 마음이 곧 진리 자체, 본질 자체라는 것이고, 심생멸문은 마음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인데, 중생심(衆生心)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동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번뇌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찬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이 대승의 입장입니다. 소승의 입장은 중생의 마음을 떠나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대승의 입장은 중생의 마음이 곧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자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 안에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심생멸문인데, 이 심생멸문이 심진여문과 일법계임을 알 때 번뇌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따로 있고 현상이 따로 있어서 현상을 떠나 본질로 가려는 마음, 현상은 진리와 상관없다고 여겨 제쳐 두는 마음이 곧 차별하는 마음이고 분리를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마음속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물든 마음과 의(意)와 의식(意識)에 대해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상응염(執相應染)은 의식(意識)이에요. 의(意)라는 감각기관이 일으킨 식(識)이죠. 그 의(意)에 해당 되는 것이 다섯 가지였는데, 이것이 곧 의근(意根)이 됩니다. 근경식(根境識)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말할 때 근(根)은 감각기관, 경(境)은 감각대상, 식(識)은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을 접하여 일으킨 마음의 흔적을 뜻합니다. 의근(意根)과 의경(意境)이 만나서 의식(意識)을 이룹니다. 의(意)라는 것도 하나의 감각기관으로 작용하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느낌들을 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지를 발견하면 의근을 발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쌓여 있는 흔적들인 감지 자체가 하나의 기준을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또 다른 감지들인 의경(意境), 즉 의식의 대상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의식의 주체인 의근이기 때문입니다. 의근(意根)이 의경(意境)을 만나서 일으키는 마음의 흔적이 바로 의식(意識)입니다.

예를들어 안경집에 대한 감지가 있는 상태에서 안경집을 보는 순간 그것이 안경집임을 아는 얇은 의-식이 일어납니다. 즉 안경집에 대해 의식하는 거죠. 이제 의식이 더 세밀해지면 '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나라는 느낌'임을 알게 되고 의식하게 됩니다. 의근(意根)은 의식작용 전체 중에서 주체라고 할 수 있죠. 여섯 개의 물든 마음 중에서 집상응염(執相應染)은 의식이고 나머지는 의근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기준이 의근이 됩니다.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라는 감각기관은 그 자체의 기준을 갖습니다. 눈은 가시광선만을 보고, 귀는 20Hz~20000Hz의 주파수만을 소리로 듣는 기준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이렇게 모든 감각기관은 각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意)도 그런 기준이 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저장했던 것들이 발현되면서 의근(意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근(根)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근본업불상응염(根本業不相應染)입니다. 업(業), 카르마(Karma)라고 하는 것은 인류역사, 또는 그 보다 더 오래된 생명체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와 에너지장에 각인되고 패턴화되고 심어진 경향성, 편향성, 특성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의근(意根)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의근에는 아직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 의근(意根)은 능견심불상응염(能見心不相應染)입니다. 근본업을 기반으로 주체와 대상으로 나뉘지면서 주체가 생겨납니다. 주관이나 주체와 상응하는 물든 마음이 바로 능견심, 즉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곧 주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대상이 있어야 생겨납니다. 마음이 주체와 대상으로 분열될 때 드디어 능견(能見)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의근은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입니다. '보는 자'가 나타나면 '보여지는 대상'이 분명해지면서 경계가 생겨납니다. 맨 처음에 '나'라는 주체와 '세상 전체'라는 대상이 있는 것이 능견상인데, 그 대상이 세세히 나뉘지고 대상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이 경계상이에요. 경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물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경계라는 것은 단순히 '구분 짓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상응(不相應)은 번뇌와 상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분별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호오(好惡)가 생겨나는 분별지상응염(分別智相應染)부터 번뇌가 생겨납니다. 좋은 것에 머물려고 하고 나쁜 것으로부터는 떠나려고 하면서 집착과 저항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부단상응염(不斷相應染)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식(相續識)이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락의 집착과 저항이 일어나면 드디어 집상응염(執相應染)이 생겨납니다. 나라는 생각이나 느낌,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느낌들에 의해서 나와 내 것에 해당하는 것에 집착하는 집상응염(執相應染)이 생겨나죠. 이 여섯 가지 물든 마음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집상응염(執相應染)은 의식(意識)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의근(意根)에 해당됩니다. 즉, 마음에 쌓인것이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섯 가지 물든 마음 중 근본업이 무명(無明)입니다. 이 무명(無明)은 분열이 없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번뇌도 없습니다. 분열 없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분화되지 않은 업(業) 상태의 분열 없음입니다. 이처럼 나뉘지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도 없는 것이 원시적인 분열 없는 마음이라면, 분열을 경험하고 분열을 넘어간 부처의 마음은 상대 속에서 동시에 절대로 존재하는 분열 없는 마음입니다. 무명(無明)은 상대로 분열되기 이전의 분열 없음이고, 절대는 상대를 초월한 분열 없음입니다. 둘 다 번뇌는 없죠. 그런데 무명(無明)의 분열 없음은 무의식과 같습니다. 의식이 일어나기 전이죠. 상대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간 분열 없음은 초의식의 세계입니다. 그 가운데 지점에 있는 분열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경험하되 의식을 넘어서 있게 되면 의식에 구애 받지 않고

\* 각주 : 위 내용에서의 의식은 의식적인 근,경,식에 해당하는 의근(意根) 의경(意境), 의식(意識) 의식이다.

분열 없는 마음으로 분열 있는 마음을 상응하게 됩니다. 의식(意識), 호오(好惡), 고락(苦樂) 이런 것들이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은 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괴로움, 슬픔, 두려움이 없는 세계로 가는 걸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기쁨, 흥분, 환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양상만 다를 뿐 똑같은 분열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분열의 세계를 넘어서 분열을 경험하려고 해야 합니다. 대부분 의식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지, 의식을 넘어서 의식을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법계(一法界)를 아는 것이죠. 분열 있는 현상의 세계(法界)와 분열 없는 진리의 세계(法界)가 하나의 법계임을 아는 것이 일법계(一法界)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깨어있기 기초과정에서 아래 M.C. 에셔(Escher, Maurits Cornelis)의 새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맨 밑바닥인 무명의 상태에서 뭔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검은 삼각형과 흰 삼각형으로 조금씩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아직 마음에 명확한 분열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완전한 분열은 맨 위처럼 검은 새와 흰 새가 공간적으로 분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맨 밑은 새는 커녕 아직 삼각형도 아니에요. 아직 삼각형이라는 이름도 붙지 않았습니니다.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공간이 없죠. 공간이 있을 때 번뇌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되어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삼각형 비슷한 상태가 무명(無明)이라면 드디어 뭔가를 보기 시작하는 능견상은 조금씩 새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 색과 검은색의 새 비슷한 형태가 보이지만 아직 서로 분리가 되지 않았고, 새의 형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게 능견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현색(現色)이죠. 경계가 생기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흰 새와 검은 새로 분리 되지는 않았지만 새의 형태가 또렷한 상태가 현색불상응염(現色不相應染)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분명하게 나뉜 경계에 좋고 싫음이 생겨나는 게 흰 새와 검은 새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흰 새가 드디어 위아래로 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를 향해 날면 즐거움이 생기고 좋은 것을 따라 가는 거예요. 아래로 날면 싫은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보는 이유는 분열 이전의 무명(無明)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공간을 통해서 흰 새와 검은 새를 분명하게 나뉜 상태입니다. 흰 새는 '나'이고 검은 새는 '마음 속 현상', 즉 감지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보면서 '저것은 핸드폰이구나.'하고 내가 대상을 보는 어떤 느낌이 생겨납니다. 내가 대상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생겨나면 그 대상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느낌도 생겨납니다. 이처럼 대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이 바로 완전히 분리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분열 이전에 맨 밑바닥의 무명 상태, 곧 마음이 아직 분열 되지 않은 상태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무명은 모든 고통의 근본이지만 무명 상태에서는 오히려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애는 고통이 없습니다. 어린애는 맞으면 아플 뿐이죠. 그것은 몸이 가진 기준 때문에 생겨나는 통증입니다. 통증과 고통은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에 반하거나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자극이 생겨나기 마련이므로 맞으면 누구나 신체적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은 마음의 일입니다. 어린 아기의 마음은 기준을 갖는 명확한 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은 느끼지만 마음에는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6.5℃라는 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 물에 손을 담으면 통증이 느껴 집니다. 몸이 가지는 기준 때문에 생기는 일은 우리가 이 현상계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상계 내에서 어떤 기준이 없으면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현상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들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여기고 그건 그대로 두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의 기준입니다. 그 마음의 기준을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마음의 고통이 없어집니다. 원문 보겠습니다.

不了一法界義者。從信相應地觀察學斷。入淨心地隨分得離。乃至如來地能究竟離故。  
불료일법계의자. 종신상응지관찰학단. 입정심지수분득리. 내지여래지능구경리고.

일법계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신상응지(信相應地)에서 관찰해 치단을 배우고, 정심지(淨心地)에 들어가 분수에 따라 떠날 수 있게 되며, 여래지(如來地)에 이르게 되어야 마침내 떠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地)는 어떤 경지, 레벨을 뜻합니다. 신상응지(信相應地)는 믿음이 상응하는 레벨입니다. 드디어 믿음이 자리를 잡아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이 길로 가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상태, 불퇴전(不退轉)의 믿음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철저히 관찰하고 번뇌를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데, 이것이 바로 관찰학단(觀察學斷)입니다. 단(斷)은 다스려서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상응지(信相應地)에 이른 사람은 관찰학단 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강력한 믿음에 들어가면 마음은 고요해져서 그 어떤 갈등 없이 추구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

없이 초월적으로 모든 분열들을 다 바라보면서 분열 없음으로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한 여섯 가지 물든 마음 중에서 앞의 세 가지 (집상응염, 무단상응염, 분별지상응염)는 번뇌와 상응하는 상응염(相應染)이었고, 뒤의 세 가지 (현색불상응염, 능견심불상응염, 근본업불상응염)는 물든 마음이지만 번뇌와는 상응하는 상응염(相應染)이었고, 뒤의 세 가지 (현색불상응염, 능견심불상응염, 근본업불상응염)는 물든 마음이지만 번뇌와는 상응하지 않는 불상응염(不相應染)입니다. 그것에 대해 다시 설명합니다.

言相應義者。謂心念法異。依染淨差別。而知相緣相同故。不相應義者。謂則心不覺。常無別異。不同知相緣相故。연상응의자. 위심념법이. 의염정차별. 이지상연상동고. 불상응의자. 위즉심불각. 상무별이. 부동지상연상고.

상응의(相應義)라 한 것은 심(心)과 염법(念法)이 달라서 염정에 의하여 차별하매 지상(知相)도 같고 연상(緣相)도 같음을 말하기 때문이며, 불상응의(不相應義)라는 것은 심(心)과 불각(不覺)이 항상 별다름이 없어서 지상(知相)이 같지 않고, 연상(緣相)이 같지 않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심(心)과 염법(念法)을 둘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심(心)은 마음의 작용, 주체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염법(念法)은 마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마음의 내용인 생각에 동일시되어 그것을 따라 헤매는 게 일반적인 마음이지요. 그런데 감지를 파악하게 되면 마음의 내용을 느낌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심(心), 다시 말해 주체로 돌아옵니다. 마음의 작용을 살피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심과 염법이 달라서 염정(染淨)에 의해 차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착한 것이고 저것은 악한 것이야.”, “이건 물든 마음이고, 저것은 물들지 않은 마음이야.”라고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기신론 소(疏)를 보면 아견(我見), 아만(我慢), 아애(我愛)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견(我見)은 ‘내가 있다, 내가 본다.’라는 느낌입니다. 아만(我慢)은 내가 오만해 지는 것을, 아애(我愛)는 나를(내가)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아견, 아만, 아애 등으로 차별하는 것이 염정에 의해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오만 할 때, 내가 나라고 여기는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마음의 내용인데, 그런 마음의 내용을 차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心)과 염법(念法)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心)은 이것들을 차별하는 주체이고 염법(念法)은 차별되는 내용입니다. 오만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죠? 이것이 마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상(知相)은 아는 주체, 연상(緣相)은 대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만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등은 연상입니다. 지상(知相)은 ‘아! 이건 오만한(사랑하는) 마음이야.’하고 알아채는 마음입니다. 지상(知相)도 같고 연상(緣相)도 같다는 말은, 오만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연상으로서 같고, 아는 작용 자체는 변함없다는 것이 지상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불상응(不相應)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응하지 않는 물든 마음(不相應染)은 번뇌에 상응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번뇌에 상응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분별이 일어났지만 아직 호오(好惡)가 생겨나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본무명업 상태를 봅시다. 생물권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을 상정해보면 거기에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습다. 그냥 모든 감각적 자극을 받아 들여 모조리 쌓아 놓은 여래장(如來藏)과 같은 상태죠. 그것을 재료로 삼아 분열이 일어나고 대상의 경계가 그려지고 “이건 좋고, 저건 나빠.”하는 분별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소재와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무명업입니다. 그러나 아직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의 상태에서는 결코 번뇌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심(心)과 불각(不覺)이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체가 되는 마음 작용과 대상이 되는 불각(不覺), 다시 말해 수많은 마음의 흔적들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차이가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면 차이가 나게 되죠. 씨앗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씨앗에 내재된 모든 유전 정보를 불각(不覺)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전 정보에 의해 싹트고 꽃이 피는 작용이 일어날 것인데, 그 작용을 심(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심(心)의 작용에 의해서 불각(不覺)이 드디어 현상화되는 거죠. 심(心)과 불각(不覺)의 조합이 현상으로 드러나면 분열, 호오(好惡), 고탐(苦樂)이 순차적으로 생겨나서 집착과 저항이 활개치게 됩니다. 그러나 현상화되기 이전의 씨앗 단계에서는 심과 불각이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상(知相)도 같지 않고 연상(緣相)도 같지 않다고 했는데, 기신론 소(疏)에 부동(不同)은 없음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즉 지상(知相)도 연상(緣相)도 없다는 거죠. 아직 현상화 되지 않았으니까요. 마음의 작용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음의 흔적들도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이라는 상(相)도 없고 앞의 대상인 상(相)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명 상태, 현상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는 마음의 분열이 없어서 앞과 앞의 대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번뇌들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능견심도 미묘한 분열이 일어난 상태지만 호오(好惡)가 구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번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주 빠르게 생겨나기 시작하죠. 능견, 현색, 분별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여 나누는 시점까지는 호오(好惡)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번뇌는 없으며 그래서 불상응염(不相應染)이라고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 청년 백일학교와 홀로스 공동체 학교

## 1. 청년 백일학교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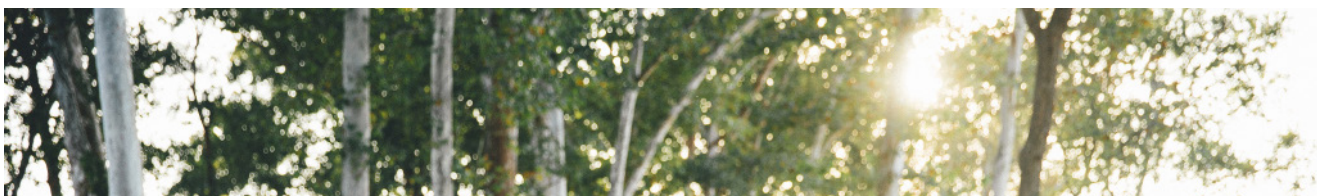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공동체 학교의 토대가 될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백일학교의 가장 큰 변화이자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청년 백일학교는 현재까지 약 2년간 20여명의 2,30대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깨어있기, 통찰력게임, 감지교육과 너머스쿨 등의 교육활동과 일상을 통한 관성다루기를 행하여 알찬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백일학교를 시작하면서 후원자들에게 드렸던 약속은, 2년 후에는 더 건강한 공동체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백일학교 과정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무조건 적인 후원이 아닌 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백일학교에 다시 기여하는 에너지 수익구조를 이루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정 이후에 백일학교 활동과 프로그램, 생활에 참여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이 새로 들어오는 청년들을 이끌거나, 주역강의, 진심직설 강의 등 오인회 모임의 결과들을 녹취하고 책으로 엮어낼 기반을 만들고 있으며, 통찰력 미니게임 개발, 청소년 영어캠프 같은 과정도 졸업생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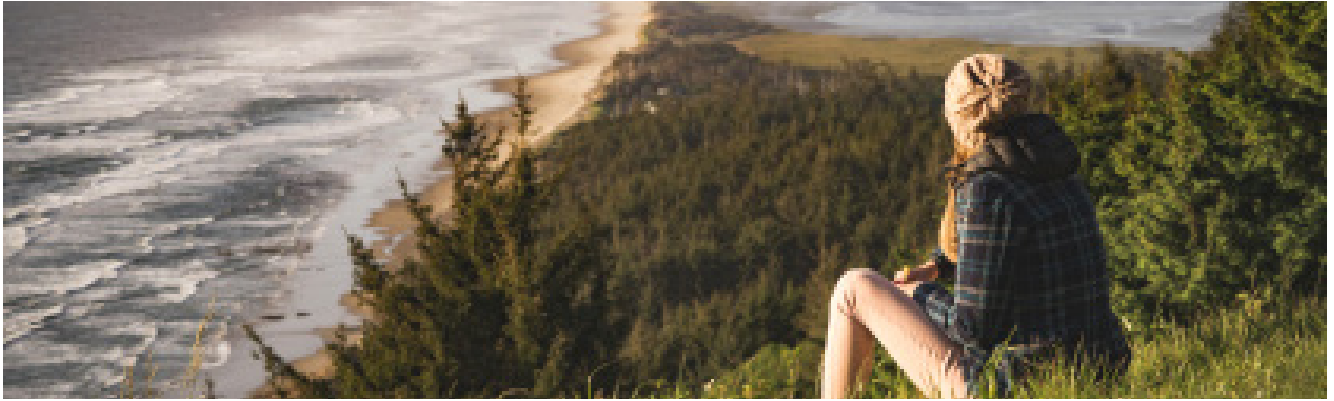
원래 중장년 층이 주로 참여했던 백일학교를 청년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시키면서, 과연 내면의 본성을 발견하기 위한 이 과정이 20대에게 와닿고 필요한 교육일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런 질문을 갖고 여러 청년들과 시간을 함께하면서 '존재로서 나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고 삶에 대해 깊은 고민과 질문을 던지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과 삶을 견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과정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공동체학교의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또하나 백일학교의 가장 큰 성과이자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백일학교를 넘어 공동체 학교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삶의 학교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청년들과 함께 쉼없이 쌓아온 시간을 밑거름삼아 앞으로의 새로운 2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목표와 방향, 비전 그리고 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식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과 어떤 준비들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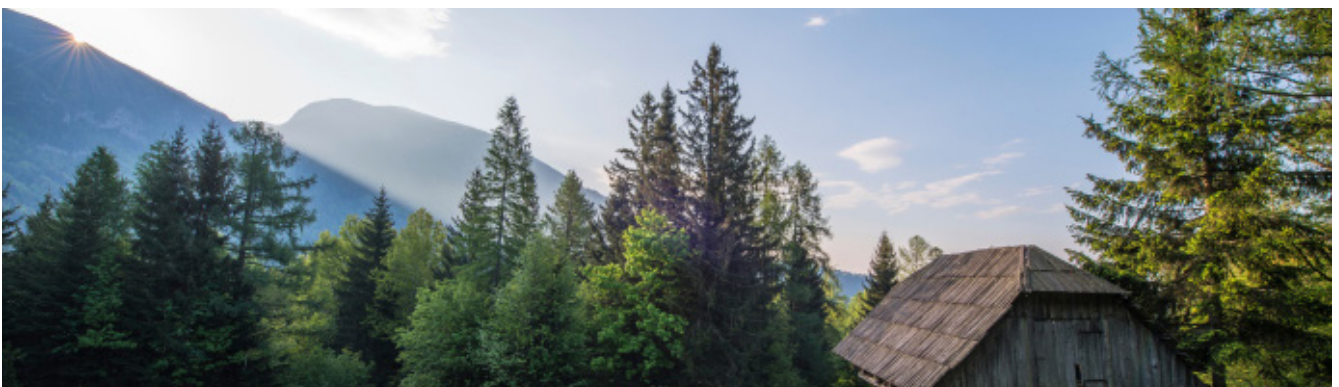


## 2. 백일학교 새로운 2년, 앞으로의 활동과 방향성

과거 어느 시대 보다 더 방대한 지식과 강연, 교육을 만날 수 있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상하게 또 어느 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도시에 살면서 계절에 대한 감각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처럼, 정형화된 삶 속에서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질문하게 됩니다. 더우기 자기 삶이라는 풍성한 바다를 스스로 항해하는 감각, 그것을 키우기 위한 시간과 환경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깨어있기와 감지 교육을 통해, 언어적 대상과 느낌 차원에서 경험되는 것의 차이를 알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삶을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 본연의 핵심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사용하며 산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가수의 노래를 반복해서 듣다보면, 다음 소절에서 이 가수가 어떻게 부를 건지, 또 현재 어떤 테크닉으로 노래하고 있는지를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라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영역인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해의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지점'으로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시도하고 경험하면서 감지를 형성해야 합니다. 감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배우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 없이 삶 전체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갓난 아이일 때는 세상을 어른처럼 정교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정교한 인식의 토대가 될 느낌을 인생의 시기에서 가장 방대하게 수용하고 성장해 나가는 때입니다. 이때 아이는 느낌을 통해서 세상을 감각하고 인식하며 연결됩니다. 오인회에서 그 동안 소개하고 실행해왔던 교육의 핵심이 바로 느낌입니다. 깨어있기나 통찰력 게임, 자연에 말 걸기, 백일학교 감지교육 등에 참여해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으로 하지 않고 느낌으로 하기'입니다. 느낌은 무의식의 깊은 지혜와 연결되는 통로이며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를 때 아무리 많은 물을 먹는 상상을 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며, 정말 목마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진짜 물을 마시는 행동과 느낌이 있을 때입니다.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느낌과 접속하는 탐구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백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대상의 캠프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자연에 말 걸기'에서 느낌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는 감각을 회복하고, '통찰력 게임'을 통해 내면의 무의식적 느낌들을 인식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기타 '마음 사용법', '주의와 놀기', '에너지 밸런스' 등을 통해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떤 지식도 검색하면 단 몇 분이면 찾을 수 있게 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삶에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감각과 감수성이 필요함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활동이 백일학교와 사회의 필요가 만나는 접점이 아닐까 생



### 3. 청년 백일학교 후원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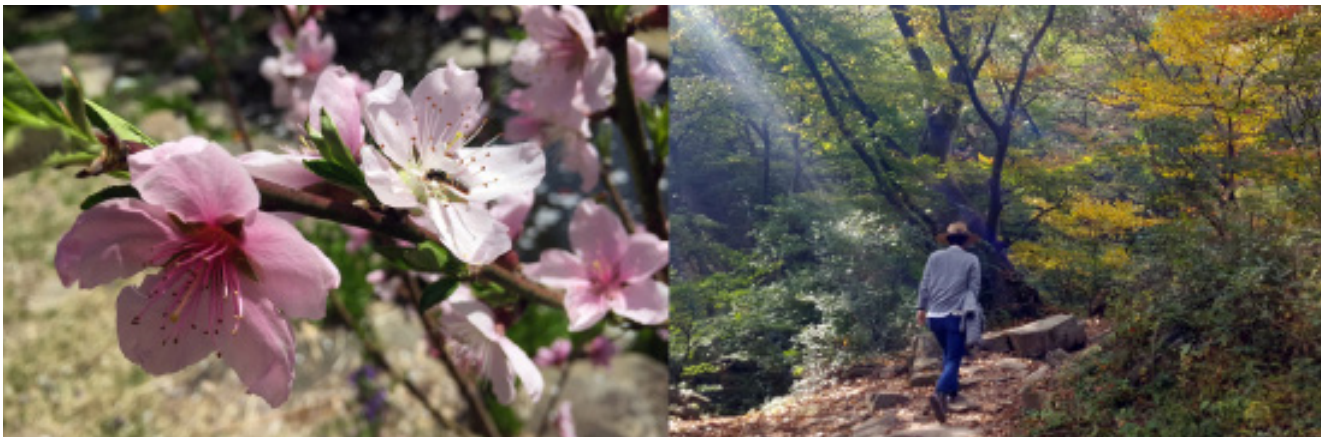
기부 시스템의 새로운 트렌드로 '클라우드 펀딩' 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좋은 제품을 개발한 사람들이 자금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일궈내지 못하는 상황일 때, 그 아이디어나 제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진행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협업을 유도하며, 이것이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의 고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사회속에 새로운 혁신이 활성화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기부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양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함께 만들어냈다는 성취와 보람, 활동의 참여와 같은 넓은 의미의 보상입니다. 이것은 의미있는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후원하는 기존 기부 활동과는 다르게 사회적 기여 활동의 균형점을 근사하게 만들어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펀딩이 주최자와 참여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기여의 기쁨과 잠재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미내사에서 그 동안 후원자 분들과 만들어왔던 관계와 닮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2년 전 소식지를 통해 청년 백일학교에 대한 후원을 요청드릴 때 청년들에게 일방적인 후원과 기부보다 후원자와 참여자 사이에서의 상호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보다 건강하고 자생적 에너지를 갖춘 청년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씀 드렸었지요. 그 바람처럼 백일학교 이후 청년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백일학교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에너지가 아름답게 순환하는 모습이 이제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학교와 학생과의 관계를 넘어서 학교, 학생, 후원자가 서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미내사에서 오랫동안 진행해 온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정교해진 순도 깊은 콘텐츠들을 후원자 분들과 회원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활동의 시작으로 내년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캠프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백일학교와 미내사가 그려가는 꿈에 공감하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교육과 콘텐츠

### 4. 청년들의 가능성을 응원하고 후원해주세요

후원금은 청소년 및 청년 관련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하는 비용과, 그것을 안내하고 스스로 마음의 본성을 발견하는 청년들에 대한 교육비, 백일학교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다시 백일학교와 홀로스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교육, 청소년 캠프를 리워드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꿈을 나누며 현실로 만들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 5. 홀로스 공동체 학교 후원 혜택 안내

후원자들에게는 본인 자녀나 주변 지인 자녀들이 캠프에 참여할 경우 할인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아래와 같이 백일학교 학생들의 정성을 드립니다. 보내드리는 식품들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수확하여 만든 것입니다.

\*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캠프참석 할인혜택과, 내년초 완성될 예정인 통찰력 미니게임 키트 1세트(통찰력 미니게임 사용법은 17년 봄에 열릴 계절수업때 알려드릴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면서도 깊은 통찰로 이어지게 하는 흥미로운 게임이 될 것입니다)를 드립니다. 그 외 아래 정성과 혜택들을 함께 드립니다.

- 10만원 이상 모과청
- 30만원 이상 헛개나무 열매
- 60만원 이상 오디잼 + 대승기신론 책 1권
- 120만원 이상 보리수잼 + 깨어있기 기초, 심화과정 1회 무료참석
- 300만원 이상 모과청 + 헛개나무 열매 + 깨어있기 기초, 심화과정 1회 + 통찰력 게임 1회 무료 참석

물론 저희는 여러분의 후원이 꼭 어떤 이익을 위해서 라기보다는 좋은 뜻으로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위의 혜택은 조금이라도 저희 정성이 깃들인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의미임을 보아주십시오.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문의처 : 02-747-2261 (사무실), 010-7217-1212 (성지)
- 2년간 기본 경비 : 매월 300만원, 2년간 7,200만원 (현재 백일학교는 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 매월 20만원씩 15분만 후원을 약속하시면 기본 경비는 충족됩니다. 이를 위해 '매월 납입' 약속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 6. 우리가 느끼는 백일학교,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청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위대한 여정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 거창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일상의 삶을 통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과 연결된다는 것. 요즘 저는 전에 책에서 읽었던 진리에 대한 말씀들이 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 자형 -
- 그것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루하루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변하는 것은 한 십년에 걸쳐서 나타나야 될 변화인데 하루 이틀 만에 바뀌어버리고.. 이곳에서 공부할수록 이런분들이 백일학교의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느껴요. - 도건 -
- 제가 주제를 탐구 하고 있을 때 잘못된 방향이라면 백일학교 내에서 공부를 깊게 하신 많은 분들이 그 방향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 믿고 거침없이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앞으로 다시 없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현재 -

